

## 부처님오신날 사면 문제에 대한

### 논 평

조계종은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고통과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발원을 했습니다. 사회갈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관용과 화해의 자비심을 깨닫게 하고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충연 위원장 등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와 한상균 노조 지부장 등 쌍용자동차 관련자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것은 이런 뜻을 정부가 함께 심사숙고해 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대변인이 정치인 관련 야당의 사면요청에 대해 거부사를 밝히며 “부처님오신날 사면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불교계의 뜻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단 한 번도 부처님오신날에 사면이 없었던 점 역시 고려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관용, 대화합의 정신을 새겨주기를 요청합니다.

불기2556(2012)년 5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 총무원 기획실장 정 만